

# 통일선보

무소속대변지

제13호 [루게 제269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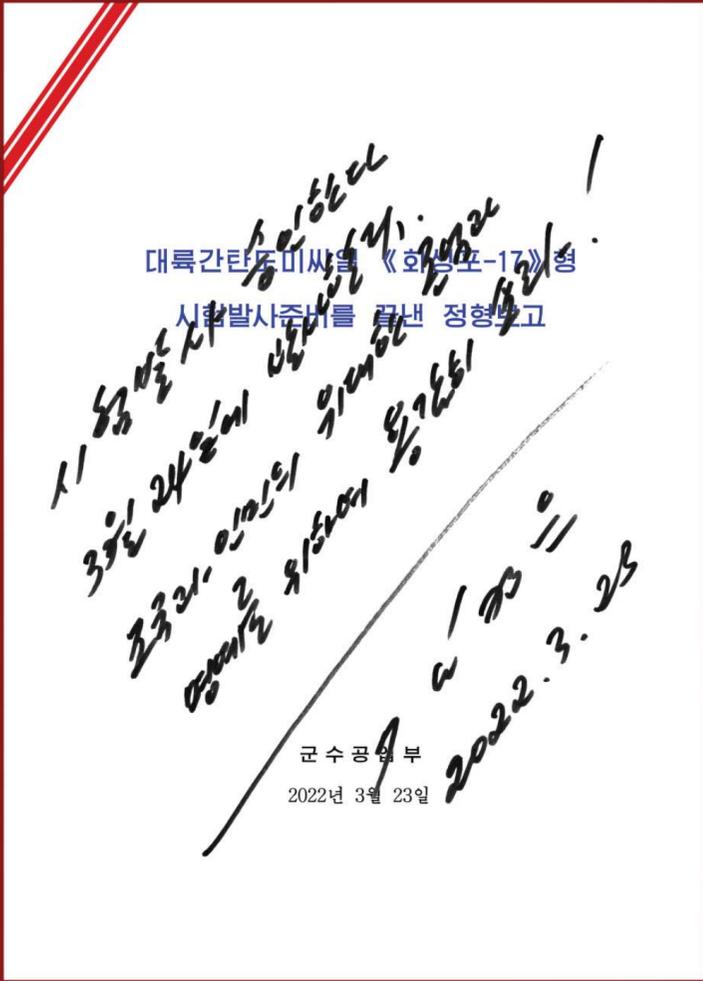
주체 111  
(2022)년 3월  
26일  
토요일  
음력 2월 24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한 명령 하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11(2022)년 3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하여 친필명령하시였다.

## 주체조선의 절대적힘, 군사적강세 힘있게 과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단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주체111(2022)년 3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 (2면으로 계속)



# 주체조선의 절대적힘, 군사적강세 힘있게 과시

##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단행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3월 23일 새로 개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한 친필명령서를 하달하시고 24일 시험발사현장을 찾으시여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하시였다.

급변하는 국제정치정세와 날로 가중되는 조선반도 지역의 군사적긴장의 근원, 핵전쟁위험을 동반하는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대결의 불가피성으로부터 출발한 우리 혁명의 전망적인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주체적인 국방발전전략과 지속적인 핵전쟁억제력강화방침을 제시하신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그 실현을 위한 중대한 국방력강화투쟁을 진두에서 조직령도해오시면서 특히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사업을 최중대시하시고 매일과 같이 세심한 지도와 방향을 주시며 《화성포-17》형무기체계를 주체적힘의 응결체로, 자력갱생의 창조물로, 공화국 전략무력의 핵심타격수단으로, 믿음직한 핵전쟁억제수단으로 완성시키 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독창적인 자위적국방전략사상을 피뎌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그이의 직접적인 령도를 받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영웅적인 군수로동계급은 창조적 지혜와 불굴의 정신력으로 연구 및 개발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짧은 기간내에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내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3월 24일 오후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준비

상태를 직접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후 발사진지로 진출할것을 명령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발사진지에 나가시여 발사준비의 마지막공정들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지도하시면서 공화국국방력의 변혁적인 발전상을 온 세상에 과시할 사변적순간을 안아오기 위하여 시험발사에 참가한 국방과학자들과 미사일병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다.

시험발사준비끝!  
드디어 력사적사변의 시각이 도래하였다.  
거대한 전략무기시험발사를 앞둔 시험발사장은 주체조선의 또 다른 강력한 핵공격수단의 출현을 온 세상에 알리고 믿음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전쟁억제력을 보란듯이 과시할 전체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의 불타는 의지로 끓어번졌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발사종합지휘소를 차지하시자 발사진지와 시험관측기초소들, 관련시험연구소들에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를 위한 전투경보가 울렸다.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사명령이 화력구분대에 전달되었으며 전략무기시험발사임무를 맡은 붉은기중대 중대장은 힘찬 《발사!》구령을 웨쳤다.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눈부신 화광이 지면을 불덩이같이 달구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가항력을 만장약한 거대한 실체가 대지를 박차고 우주만리로 솟구쳐올랐다.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고각발사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은 최대정점고도 6, 248.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 090km를 4, 052s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요구에 정확히 도달되었으며 전시환경조건에서의 신속한 운용민응성을 과학기술적으로, 실천적으로 담보할수 있다는것이 명백히 증명되었다.

국가핵무력건설계획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이 장비하고 운용하게 되는 이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무기체계는 반공화국핵전쟁위협과 도전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그 어떤 군사적위기에든 공세적으로 대응하며 공화국의 안전을 수호하는 강위력한 핵전쟁억제력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믿음직하게 수행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무기출현은 전세계에 우리 전략무력의 위력을 다시한번 똑똑히 인식시키게 될 것이라고, 이는 우리 전략무력의 현대성과 그로부터 국가의 안전에 대한 담보와 신뢰의 기초를 더 확고히 하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첨단국방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성공은 주체적힘으로 성장하고 개척되어온 우리의 자립적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일대 과시로 된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오늘의 이 기적적인 또 한번의 승리는 온갖 난관과 어려움속에서도 조국의 안전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안녕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당의 자위적국방건설로선과 핵무력건설로선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고 받들어준 위

대한 조선인민이 쟁취한 값높은 승리이라고 선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안전과 미래의 온갖 위기에 대비하여 강력한 핵전쟁억제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정부의 전략적선택과 결심은 확고부동하다고 하시면서 비할바없이 압도적인 군사적공격능력을 갖추는것은 가장 믿음직한 전쟁억제력, 국가방위력을 갖추는것으로 된다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국가의 모든 힘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해나갈것이라고, 이것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수호를 위해, 우리 조국과 후대들의 영원한 안녕을 위해 우리당이 내린 결심이며 우리 인민스스로의 숭고한 선택이라고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누구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려한다면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국가방위력은 어떠한 군사적위협공감에도 끄떡없는 막강한 군사기술력을 갖추고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대결을 철저히 준비해나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은 미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위험한 군사적기도도 철저히 저지시키고 억제할 만단의 준비태세에 있다고 확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는데 공헌한 붉은기중대전투원들과 주요국방과학일군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민족사에 특기할 기적적승리를  
안아오신 불멸의 영도

# 민족의 존엄과 평화수호의 절대적힘을 억척으로 다지시여



우리 식의 대출력발동기시험분출시험 진행 (2017년 3월 18일)

지난 24일 주체조선의 절대적 힘, 군사적강세를 힘있게 과시하며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가 단행되었다.

세상이 알지도 보지도 못한 초대형대륙간탄도미사일, 거대한 불출기를 뿜으며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이 만리창공으로 날아오르던 그 순간은 조선의 무궁무진한 힘이 온 세계에 떨쳐진 역사적순간, 주체조선의 또 다른 강력한 핵공격수단의 출현을 온 세상에 알린 격동의 순간이었다.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의 어머니마한 동체를 만리창공으로 힘있게 떠밀어올린 그 엄청난 힘과 눈부신 화광은 이 지구를 통째로 뒤흔들어놓았다.

역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민족사적대사변을 접한 공화국인민들은 누구나 걱정도 넘쳐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후손만대의 영원한 안보를 굳건히 수호하는 절대적힘을 떠올린 절세의 애국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경의와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다.

\* \* 공화국은 자기의 창건을 선포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절대적력들의 항시적인 위협속에서 자기 발전의 길을 열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 엄혹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세계적판도에서의 군사력의 급속한 변화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후손만대의 영원한 존엄과 행복과 안녕을 위해 사생결단의 국방공업혁명의 길, 미지의 생생길을 진두에서 헤쳐오시었다.

이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몸소 총설계자, 총제작자,

정치위원이 되시여 새로운 전략무기개발의 연구총자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 위험천만한 미사일 총조립전투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과정들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해주시면서 대성공, 대승리로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그이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속에 《3.18혁명》과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11월대사변》과 같이 공화국을 주체의 핵강국으로 우뚝 올려세운 역사의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고 국가핵무력완성의 대업이 빛나게 실현되게 되었다.

역사적인 《11월대사변》이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멈춤없이 줄기차게 이끄시었다. 급변하는 정치정세와 날로 가중되는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적긴장의 근원, 핵전쟁위험을 동반하는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대결의 불가피성을 빛나는 예지로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주체적인 국방발전전략과 지속적 핵전쟁억제력강화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중대한 국방력강화투쟁을 진두에서 조직명도해오시면서 특히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사업을 최중대시하시고 매일과 같이 세심한 지도와 방향을 주시며 《화성포-17》형무기체계를 주체적힘의 응결체로, 자력갱생의 창조물로, 공화국 전략무력의 핵심타격수단으로, 믿음직한 핵전쟁억제수단으로 완성시켜오시었다.

그이의 세심한 지도와 헌신의 로고에 의하여 마침내 공화국국방력의 변혁적인 발전상을 온 세상에 과시한 사변적순간이 마련되게 되었던것이다.

공화국의 새로운 전략무기의 출현으로 하여 공화국인민들은 세

세넨년 존엄높은 강대한 나라에서 전쟁의 참화를 모르코 번영과 행복을 마음껏 창조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를 지도하시면서 나라의 안전과 미래의 온갖 위기에 대비하여 강력한 핵전쟁억제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정부의 전략적신념과 결심은 확고부동하다고 하시면서 비할바없이 압도적인 군사적공격능력을 갖추는것은 가장 믿음직한 전쟁억제력, 국가방위력을 갖추는것으로 된다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국가의 모든 힘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해나갈것이라고, 이것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수호를 위해, 우리 조국과 후대들의 영원한 안녕을 위해 우리 당이 내린 결심이며 우리 인민스스로의 숭고한 선택이라고 천명하시었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위대한 인민이 사는 이 나라를 지키고 빛내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그 실현을 위해 심신을 깡그리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의 자위적전쟁억제력은 얼마나 높은 경지에 올라섰는가.

진정 세계가 놀라고 경탄을 금치 못하는 조선의 절대적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 마련해주시신 정의의 보검이다.

최세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여 주체조선의 무적의 자위적전쟁억제력은 더욱 비상히 강화될것이며 그것은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의 군사적허세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공화국의 승리적전진과 민족만대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진행 (2017년 7월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시험발사 진행 (2017년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 진행 (2017년 11월 29일)



극초음속미사일시험발사 진행 (2022년 1월 11일)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 진행 (2022년 3월 24일)



### 저레의 통일속망을 들어주시려고 (2)

지금으로부터 77년전 8월 온 저레는 조국해방의 환희와 격정에 휩싸여있었다.

그러나 외세의 검은손은 조선민족에게서 해방의 기쁨을 여지없이 빼앗아갔다.

일제의 패망이 기정사실화되기 바쁘게 우리 민족의 평토에 제멋대로 북과 남을 가르는 저주로운 분계선을 그은 미국은 《해방자》로 자처하며 피눈은 군화발을 남조선에 들어놓자마자 조선의 영구분열을 획책하였다.

당시 미국은 남조선의 매국배족 세력을 부추겨 유엔의 간판밑에 범죄적인 《단선단정》 조작행동을 악랄하게 벌여왔다.

외세의 책동에 의하여 나라의 분열이 고착화될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었던 그 시기 어버이수령님께서 미국의 민족분열책동을 반대하고 전조선적인 민주주의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남조선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평양에서 열자는것을 받기하시었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련석회의의 소집방안은 사상과 정견, 리념과 주의장치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을 조국통일실현으로 부르는 애국애족적제안이었다.

그런데 걸어온 행로와 경력, 리념이 서로 다른 각계층의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여앉게 하는것이 사실 수월한것이 아니었다.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반공을 일삼아온 저들의 과거행적에 대한 위구심으로 하여 평양에서 열리는 련석회의에 참가하는것을 주저하였다. 게다가 련석회의소집을

가로막아나서는 미국과 매국역적들의 방해책동도 악랄하게 벌여졌다.

바로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 백범 김구선생의 소견을 가지고 찾아온 련락원을 만나주시었다. 그를 통해 김구선생의 심중을 헤아려보신 수령님께서 반공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일은 다 백지화한다고, 과거분분의 원칙은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확립된 전통이라고 명백히 교시하시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라면 실사지단할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해도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통일의 길에 내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도량에 감



## 전민족적인 통일회합을 마련하시어

복하여 김구를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은 걱정을 금치 못하면서 련석회의에 참가할 용단을 내리었다.

그들의 뒤를 따라 련석회의참가를 주저하고있던 중간, 우익계열의 정당, 단체들도 앞을 다투어 회의참가를 결정하고 련이어 평양으로 찾아왔다.

하여 주제37(1948)년 4월 평양에서는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련석회의인 남조선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가 진행되게 되었다.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조선정치정세》라는 련석회의보고를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나라

에 조성된 정치정세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는데 기초하시어 미래의 조국분열책동을 반대하고 전조선적인 민주주의적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팔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었다.

남북련석회의에서는 《조선정치정세에 대한 결정서》와 《전조선민족통일정부를 위한 결정서》라는 격문을 채택하였다. 결정서와 격문에서 조선민족은 단선정치에 의하여 꾸며지는 괴뢰정부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것이며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진정한 통일정부를 세울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

언하였으며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미래의 침략도구인 《유엔립조선위원단》의 감시밑에 감행되는 남조선단선정부를 저지파란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팔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었다.

4월남북련석회의는 비록 사상과 리념이 서로 다른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를 가지더라도 여러 정치세력들과 각계각층이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으며 북과 남이 화합하고 온 민족이 단결한 조국의 자주적통일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회의에 참가한 남조선의 우익계열들도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어 평양에서 북과 남의 애국적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독립을 전취할 때까지》를 합의한것은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라고 하면서 련석회의인 남조선련석회의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시 련석회의가 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미국의 한 출판물도 《미국의 남조선단선정치강행정책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은...1948년 4월 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평양에 모여 련석회의를 개최한것으로 정점을 이루었다.》고 전하였다.

참으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와 현명한 령도에 의해 마련된 련석회의인 4월남북련석회의는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뜻깊은 장을 아로새긴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김철진

주제 84(1995)년 1월 어느날 이른 새벽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급히 전화를 걸어 오셨다. 그이께서는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가 빨리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하시었다.

당시 일본의 효고현을 비롯한 긴키지방에서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인적, 물적피해를 당하였는데 제일동포들이 입은 재산도 컸다.

하루아침에 생애같은 혈육들과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모든것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동포들의 정상은 그야말로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지진피해가 있는 다음날 아침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피해지역 동포들,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문과 애도의 뜻을 표하며 총련의 모든 조직들과 동포들이 단합하여 지진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안착된 생활을 이룩하기를 바라는다는 내용의 위문전문을 총련에 보내주시었다.

절세위인의 뜨거운 동포애가 자자구구에 담겨진 위문전문을 접한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은 걱정으로 눈물을 적시며 피해복구에 떨쳐나섰다.

그러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불행과 슬픔을 겪고있는데 우리가 가만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지진피해를 입은 총련동포들에게 돈을 보내줄데 대하여 이르시었다. 순간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당시 공화국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고있었다. 한푼의 자금도 귀한 때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문금을 보내실것을 결심하시었던 것이다.

제일동포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을 가해주는 일이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설사 우리가 죽을 먹고 굶는한이 있더라도 위문금을 많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거듭 이리시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을 우려는 일군들의 뇌리에는 오래전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주는 문제를 놓고 뛰노 뛰노해도 민족이 제일이라고, 도와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하신 그이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러하여 제일동포들에게 나라가 그처럼 어려운 때에 지역의 위문금이 돌려지게 되었다.

《1995년 국제10대뉴스》의 하나로 된 일본의 대지진은 그 재해상황으로 볼 때 기록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보다도 절세위인의 하늘같은 인덕이 이역만리에 찬란히 빛날것으로 하여 련석회의에 더욱 뚜렷이 새겨지게 되었다.

본사기자

### 이역만리에 비쳐든 따사로운 햇빛

은 인덕이 이역만리에 찬란히 빛날것으로 하여 련석회의에 더욱 뚜렷이 새겨지게 되었다.

본사기자

### 평토의 천재

## 새로운 평양속도가 창조되던 나날에

어느덧 10년 남짓한 세월이 흘렀다.

민족의 반만년력사에 비하면 순간에 불과한 이 기간에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새인생을 늘려오는 거창한 창조와 전변의 새 련이 펼쳐졌다. 이 나라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시험하며 혹독한 시련과 난관들이 수없이 앞길을 가로막아왔지만 그 격난을 뚫고 헤쳐나 오신 찬란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내달려왔다.

이 잊지 못할 나날들에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속에 신념으로 더욱 굳어졌던 것이 있으니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는 과학이고 승리이며 그이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다.

\* \* \*

지난 10여년간 평양은 천지개벽이 되었다.

대동강기슭에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만 보아도 그러하다.

풍치수려한 대동강호안을 따라 조화롭게 들어앉은 수천세대의 초고층살림집들과 육육식살림집들은 외벽이 갖가지 색깔로 마감되고 지붕형식도 새롭고 특색있게 시공되어 화려한 천연색거리의 웅자를 한껏 드러내고있다.

전자거리의 모양으로 건설된 53층살림집은 멀리에서도 미래과학자거리라는것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한다.

어찌 그뿐이랴.

현대적인 학교와 병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과 화려한 봉사망들, 이채롭게 꾸러진 휴식터와 공원들...

이 하나하나의 건축물들마다에는 몸소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어 거리형성안으로부터 설계, 시공, 건물들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의 세심하고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이 깃들여있다.

주제103(2014)년 5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동강기슭에 현대적인 과학자거리의 건설하도록 하시고 그 이름을 《미래과학자거리》로 명명해주시었다.

그리고 주제104(2015)년 2월 어느날에는 몸소 하늘길에 오르시어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의 모습을 일일이 부감하시고 그그로 현장에 나오시어는 모든 건축물들을 자기의 특색, 자기의 얼굴이 살아나면서도 과학자거리의 상징할수 있게 독특하게 일떠세우도록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은 1970년대, 1980년대의 건설전투장을 방불케 한다고, 이곳에서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가 창조되고있다고, 이런 속도로 나가면 가까운 앞날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평양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더욱 훌륭히 일신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하시었다.

인민이 누리게 될 최고의 문명을 창조하시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변불휴의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었다.

천히 거리의 중심축도 새로 정비주시고 미래과학자거리를 상징하는 주력도 건설하며 건물들의 형식을 지난 시기와는 완전히 새로게 하도록 설계가들에게 이르시었다.

그리고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해주시고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었다.

하늘의 별을 따서라도 과학자들에게 금방식을 펼쳐주시려는

그 사랑에 떠날뉘려 세대마다에 공동살림방과 부모방, 부부방과 자식방, 부엌이 손색없이 꾸러지고 고급가구까지 빠짐없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새 거리에 준비하게 일떠선 공공건물들과 봉사시설등에 위대한 사랑의 손길이 깃들여있다.

은 나라의 천만가지 크고작은 일을 다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시켜주시 미래과학자거리의 공공건물들과 봉사시설형성안은 무려 15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경애하는 그이의 뜨거운 인민사랑과 세심한 지도의 손길아래 초고층살림집들과 광장삼림, 튜경장미원을 비롯한 봉사망들이 시간을 주름잡으며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한 10월 어느날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궁궐같은 살림집에서 살게 될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을 그려보시며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이라고, 미래과학자거리를 보니 10년을 1년으로 앞당기는 우리 조국이 10년후엔 더욱 물라보게 전변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해 창건거리와 통라인민위원지, 문수물놀이장, 튜경원, 인민 야외의무장,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이 일떠선 대동강반에 웅장화려한 미래과학자거리가 솟아오르는데 이어 과학기술전당과 대동강수산물식당이 건설되어 평양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본사기자 황금숙

평양시에 5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간절한 소원중의 하나이다.

오로지 인민을 마음속 첫자리에 놓으시고 자신의 심신을 갖 그리 불태워 인민을 위한 일이 되고 열이 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고싶어하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속연에 떠받들려 송신, 송화지구에서 인민의 새 거리,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사회주의변화가 일떠섰다.

머지않아 인민들이 자기 손으로 준공페트를 끌고 보급자리에 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고, 자신의 소망이 또 한가지 풀리게 되었다고 그리고 기뻐하시며 대양까지 인민들이 새집들이를 할수 있게 완벽하게 마무리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세집을 받아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할 사랑하는 인민들의 모습이 금시라도 눈앞에 보이는듯, 집집의 창가에서 울려 나오는 자식들의 행복의 노래소리를 들으시는듯 만면에 환한 미소 지으시고 송신, 송화지구에서 일떠선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를 돌아보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인민들은 걱정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은 소원에는 자신을 위함은 하나도 없고 오직 인민을 위한 소원만이 있으며 그 소원 한가지한 가지를 이루시기 위해 참으로 헤아릴수 없는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고계신다는것을.

이 나라의 첫새벽을 남먼저 맞으시었던 위대한 장군님을 대신하여 이제부터는 자신께서 조선의 첫 새벽문을 열것이라고

### 원수님의 소원

단순히 고마움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들이 받아안게 될 더없는 행복에 대한 걱정과 분출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갈 맹세의 눈물이기도 하였다.

이 나라 인민은 알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품고계시

는 소원에는 자신을 위함은 하나도 없고 오직 인민을 위한 소원만이 있으며 그 소원 한가지한 가지를 이루시기 위해 참으로 헤아릴수 없는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고계신다는것을.

이 나라의 첫새벽을 남먼저 맞으시었던 위대한 장군님을 대신하여 이제부터는 자신께서 조선의 첫 새벽문을 열것이라고

진정 이 나라의 하루는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소원과 그이의 안녕을 바라는 인민의 소원을 안고 흘러간다.

인민의 행복만을 바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소원, 자애로운 어버이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인민의 소원이 끝없이 교차되어 흐르는 이 땅에 펼쳐진 송신, 송화거리의 별천지를 보며 인민은 다시금 알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수 없다는것을 본사기자 리연선

## 시조 사랑의 자욱우에 꽃피는 일화 (3)

화가 김영일

### 쉬이 나설수 없구나

도시의 극장도 부럽지 않다는 중흥리문화회관 문 열고 들어서니 발걸음 땀수 없구나 예술소조원들 러치는 격정에 가슴젖어

수십년전 삼도공구집회에서 앞으로 백두대지에 문화주역이 준비하게 늘어설것이라고 인민들과 하신 장군님 그 약속

우리 원수님 장군님 그 약속 지켜 눈내리는 날에도 불뿔이 쏟아지는 날에도 여기 삼지연땅 찾고왔으시었다 인민의 리상향 펼쳐주시었다

### 우리는 삼지연을 떠나지 않는다

아, 그림은 시각의 언어라 했지만 아무리 애써 그려도 삼지연사람들 그 감격 그 격동 담지 못할 아쉬움에 붓을 놓을수 없거니 문을 쉬이 열고 들어서 문화회관 쉬이 문 열고 나설수 없구나

저 백두의 솟는처럼 리없이 맑은 아이들의 웃음 생생히 그려냈던가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공장에서 울려나오는 세찬 동음의 활력

기세차게 박동있게 그려냈던가

한장한장 그려낸 그림은 많았어도 못다 그린 화폭을 남기고 가는데

자꾸만 더디어지는 발걸음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는 눈길

아, 삼지연 정든 땅이 아름다운 땅이

### 얼백장 그려도 천만장 그려도

다 담을수 없는 원수님의 그 헌신의 세계 그 헌신으로 살아오신 인민의 행복 어느 명화가인들 담을수 있리라 한껏 아쉬움없이 그려낼수 있리라

오리라 다시 오리라 이 백두에 농촌진흥의 표준 산간문화도시의 전형이 삼지연땅에 다시 오리라 두근두근 전해갈 원수님사랑 화폭에 담아 련석에 길이 전해가리라

떠나지고 재촉의 경적은 울리지만 결코 이 길은 삼지연을 떠나는 길 아니리라 마음속으로 삼지연과 더 가까워지는 길 오, 우리는 삼지연을 떠나지 않는다



한평생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9)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로 내세워주시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통일 애국의 길에 나선 사람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었는가를 하는 것은 남조선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고있던 비전향장기수들을 공화국의 품으로 데려오도록 하신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비전향장기수들은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이다. 수십여년간을 철창속에 갇혀 형언할 수 없는 갖은 악행을 당하면서도 통일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은 비전향장기수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신분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이다. 주체82(1993)년 3월 남조선에서 수십여년간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통일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은 전 조선인민군 종군기자였던 리인모를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3(1994)년 2월 어느날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남조선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어떻게 하나 모두 데려올 결심을 하고있다고 절절히 고사하시었다. 남조선에 있는 통일애국투사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시기 위해 마음 써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첫 북남수뇌상봉의 날 비전향장기수구원문제를 특별히 상정시키시고 6.15북남공동선언의 중요한 조항의 하나로 명문화하도록 하시어 그들이 공화국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

시었다. 이렇게 되어 2000년 9월 초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관문점 분리선을 넘어 공화국의 품에 안기는 사변적인 화폭이 펼쳐지게 되었다. 지금도 민족의 강한 아들들이 오는것을 열렬히 환영하여 수백리 언덕에 달려나와 환영의 꽃물결을 펼치었던 20여년간의 그날이 눈앞에 삼삼히 이르른다. 세계언론들이 대서특필한바와 같이 비전향장기수들의 공화국에로의 귀환은 《지옥행에서 락인행 에로의 인생전환》이었다. 력사를 거슬러보아도 세상에는 비전향장기수라는 말도 없거니와 이런 영웅전사들의 조국개신이라는 사변도 있어본적이 없다. 고구동서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이 극적인 사변, 세계가 경탄한 이 꿈같은 현실은 통일애국전사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불보다 뜨거운 사랑과 믿음, 숭고한 도덕의리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었다. 비전향장기수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하고 웅심깊은 세계는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것이였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해온 비전향장기수들을 금방석에 앉혀 그들에게 이 세상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시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심정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전향장기수들은 모두 애국자, 혁명가라



고 높이 불러주시며 그들을 공화국영웅으로,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내세워주시고 최상의 생활조건이 갖추어진 살림집들에서 마중맞는 행복을 누릴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시기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어 살림집주변에 소음은 없는가, 방에 해가 잘 드는가, 방안온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그들이 불편할 할새라 집문턱의 높이까지 헤아려주시었다. 이뿐이 아니다. 불굴의 신념을 안고 통일애국의 한길을 굳힘같이 걸어온 전사들의 위훈을 빛내

여주시려고 그들의 투쟁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도록 하여주시고 피흘리며 지켜 싸운 조국의 아름다운 산천과 약동하는 현실을 마음껏 보고 즐길수 있도록 사랑의 조치들도 끊임 없이 취해주시었다. 또 어느 깊은 밤에는 곁방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비전향장기수들의 생활을 료해하시고 수십 가지 보약과 지팡이까지 마련해주시도록 하시고 희귀한 음식도 그들이 식탁에 먼저 오르도록 해주셨으며 인속명절날이면 민족음식을 잘 차려 대접하라고 오목까지

보내주시며 사랑에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어 위대한 장군님. 그이의 따뜻한 사랑과 각별한 보살핌속에 비전향장기수들은 온 나라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여생을 기쁘고 행복속에 보낼수 있었으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값높은 삶을 받아안게 되었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어 비전향장기수들은 조국과 겨레가 알고 후대들이 기억하는 통일애국투사의 삶에 빛내일수 있었다. 리진덕

민족자주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공화국이 변함없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기치이다. 민족자주! 결코 오늘날에 새롭게 들게 되는 말이 아니다. 70여년세월 겪어오는 우리 민족의 분열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민족문제해결을 위해 고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너리에 깊이깊이 새겨보는 말이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의 분열을 끝내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업무를 이룩하기 위한 령정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온 공화국의 자랑찬 행적이 뚜렷이 새겨져있다. 지금도 70여년전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민족자주의 리념, 민족대단결의 경륜에 깊이 감복하여 평양의 모란봉극장으로 구름처럼 모여들던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수백명 대표들의 붉게 상기된 모습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같다. 외세와 그 추종세력의 책동으로 민족분열이 고정화될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던 그때 공화국은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 밑에 온 겨레를 묶어세워 조성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투쟁하였다. 그후에도 공화국은 민족자주리념으로 일관된 통일방안과 제안을 내놓으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통일강령들과 방안, 그 실현을 위해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

가 취한 조치들은 시종일관 조국의 통일을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겨레의 가슴을 통일열기로 끓이며 진행된 범민족대회와 민족통일대추전들 그리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이 땅에 조국통일의 전환적구면의 새시대를 펼쳐놓았던 잊지 못할 2000년과 2007년,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었던 2018년의 경이적인 사변들은 공화국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민족자주의 리념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민족자주의 리념은 조국통일대헌장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라고 밝혀주시었다. 오늘날 민족자주로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온 겨레의 절절한 념원과 지향으로 되고있다. 남조선 각계에서도 《지금 민족자주나 외세추종이나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외세추종을 단호히 배격하고 민족자주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민족자주만이 해답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게 울려나오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기치따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조명숙

민족자주는 통일운동의 생명선



통일을 불러

해외교포운동의 명망높은 활동가로 (3)



제일조선인운동의 앞길에 준엄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왔다. 1949년 9월 일본반동들의 야만적폭거에 의해 조련이 강제해산되었던것이다. 조련인들은 공직에서 추방당하고 조련의 재산은 전부 몰수되었으며 하나밖에 없던 조선말신문인 《해방신문》도 폐간되었다. 그러나 한덕수선생은 조국과 동포들앞에 지닌 의무를 한시도 잊지 않고 새로 조직된 제일조선인중앙단체협의회 회의 주위에 동포들을 묶어세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미국과 리승만미국당에 의해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자미해의 죄행을 규탄하고 지지파관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동포들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속에서 1951년 1월 새로운 동포조직인 제일조선민주통일전선(민전)이 결성되게 되었다. 그러나 민전결성후 제일조선인운동내부에 끼여든 사대주의자들의 중동으로 엄혹한 사태가 빚어졌다. 이자들은 제주도에 공화국기가 휘날린다고 해도 제일동포들의 처지는 달라질것이 없다고 하면서 조직강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호》조항을 빼던지고 중추혁명명문을 부르짖었다. 결과 초보적인 생존권도 가지지 못한 동포들이 무모한 투쟁에 나섰다. 더운 피를 쏟았으나 우리 동포들의 파란수가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쫓겨났으며 수많은 동포상공인들이 기업권을 빼앗기고 파산당하는 등 엄혹한 사태가 빚어졌다.

그러하여 한덕수선생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위대한 전승을 마련하시느라 불철주야의 분망한 나날을 보내고계실 김일성장군님께 제일조선인운동의 운명구원을 바라는 청을 올리게 되었다. 펜을 달리는 그의 심중에 그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피로움과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밀물처럼 차올랐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 뵈은것은 주체37(1948)년 12월이었다. 일본반동들이 부당한 조건을 내걸고 그들의 출국을 끝내 승인하지 않았지만 민족의 태양의 품을 꿈꿨으며 그리던 한덕수선생을 비롯한 애국인사들은 쪽배를 타고 모진 고생끝에 평양으로 왔다.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의 나라에서 당하는 망국노의 실상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는가 하는것을 자신께서 직접 체험해보자 잘 알고있다고 하시며 동포에의 따뜻한 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련대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며 제일조선인운동의 장래를 부탁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그런데 그 하늘같은 믿음에 보답하지 못하고 이렇듯 제일조선인운동의 운명구원을 바라는 청을 올리게 되었으니 그의 심중이 얼마나 무거웠으랴.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1(1952)년 12월 최고사령부에서 한

덕수선생의 편지를 가지고 온 연락원을 만나주시었다. 복잡한 사태의 본질을 순간에 꿰뚫어보신 그이께서는 제일조선인운동을 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며 제일조선인들의 민족적권리를 지키고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전개시키는것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고 제일조선인운동을 구원하는 길이며 제일동포들의 념원과 지향에 맞는 참된 애국의 길이라고 간곡히 가르쳐주시면서 이러한 의견을 한덕수동지를 비롯하여 제일조선인활동가들에게 전하여 주면 좋겠다고 이르시었다. 잘못 나가던 제일조선인운동의 향로를 단번에 바로잡는 로선전환 방침에 접한 한덕수선생은 회색 천군마를 얻은듯한 크나큰 책임감을 느꼈다. 제일조선인운동에 넘친 그는 제일조선인운동에서 고결적인 사대의 후과를 가시기 위해 철리 받길도 가리지 않았고 침식을 잊어가며 집필활동도 벌였으며 치열한 론쟁과 진지한 설득으로 사람들의 머리를 티워주시기도 하였다. 마침내 1955년 5월 25일 도교에서 제일조선인총련합회 결성식이 진행되었다. 규슈에서 흑카이로에 이르는 일본의 전 지역에서 500명가까운 대의원들과 600명의 방청이 동포들의 열렬한 축하를 받으며 결성대회가 열리는 아사구사공회당으로 모여왔다. 본사기자

대회참가자들은 제일조선인들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공화국정부주위에 굳게 단결시키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투쟁할데 대하여, 공화국공민권과 교육권을 지키며 세계 각국 인민들과의 우호친선과 국제적대성을 강화할데 대하여 밝힌 총련 8대강령을 우렁찬 박수속에 채택하였다. 결성대회에서 한덕수선생은 총련의 초대장으로 선출되었다. 총련의 결성은 제일조선인운동의 발전과 이국의 황야에 휘부러졌던 제일동포들의 생활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건이었으며 그것은 오직 민족의 어머니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민족의 경사였다. 그날의 감격에 대해 한덕수선생은 후날 이렇게 썼다. 《1955년 5월 25일! ...이국땅에 높이 울린 그날의 만세소리, 그 폭발적인 환호성, 그것은 생사중망의 위기에 처한 제일동포들을 구원해주시고 영광으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신의의 기적의 정발현이었으며 세계해의교포운동에서 새 력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우렁찬 퇴성이었습니다.》 후날 한덕수선생은 만나시어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시던 때의 일여 대하여 회억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본에는 의장동지를 비롯한 몇몇 핵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놓은 제일조선인운동의 로선전환방침을 구원하여 총련을 결성할수 있었다고 고사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제일조선인운동의 로선을 바꿀때 대한 방침을 내놓았지만 의장동지를 비롯한 핵심들이 없더라면 총련과 같은 주체적인 해외공민조직을 내놓을수 없었을것이라고, 총련을 결성하는 사업에서 의장동지가 중요한 핵심적역할을 하였다고, 의장동지는 총련의 창건자의 한사람이라고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총련의 결성, 정녕 그것은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사상을 내놓으시고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참담하게 복무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와 그이의 높은 뜻을 받들고 주체적인 해외교포조직의 결성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 한덕수선생을 비롯한 애국인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본사기자

조국통일 3대원칙에 대한 이해

조국통일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주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원칙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조석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그리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애국의 진보와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3대원칙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갈수 있게 한 조국통일의 기치이며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통일애국강령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라고, 조선로동당의 주체적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시는 조국통일3대원칙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다고 천명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일관적으로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갈것이라고 밝혀주시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조국통일의 기치로 높이 들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유금주

민족의 통일지향에 상전의 버림을 받고 역형한 대결공들의 말로 개죽음을 당한 《유신》 독재자

남조선에서 지금 보수 《정권》의 출현을 앞두고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의 암운기가 되살아났기에 라는 불안과 우려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의 홀러운 정치사가 보여주는것처럼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는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악랄히 감행한 독재자들은 비참한 민족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대국역적 박정희의 비참한 종말이 그 하나의 실례이다. 남조선의 박정희 《정권》은 회색의 독암정치로 인민들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승공통일》에 미쳐난런 악명높은 반통일 《정권》이었다. 박정희역도는 1966년 6월초에 《기차회견》이라는것을 벌려놓고 《당장 통일이 실현되면 남조선이 적화될 위험이 있기때문》에 지금은 《승공》을 위한 《실력을 배양》하여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한 반공체제를 정면비방하고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파쇼정보정치로 실시하면서 남조선에서 지금 보수 《정권》의 출현을 앞두고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의 암운기가 되살아났기에 라는 불안과 우려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의 홀러운 정치사가 보여주는것처럼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는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악랄히 감행한 독재자들은 비참한 민족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대국역적 박정희의 비참한 종말이 그 하나의 실례이다. 남조선의 박정희 《정권》은 회색의 독암정치로 인민들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승공통일》에 미쳐난런 악명높은 반통일 《정권》이었다. 박정희역도는 1966년 6월초에 《기차회견》이라는것을 벌려놓고 《당장 통일이 실현되면 남조선이 적화될 위험이 있기때문》에 지금은 《승공》을 위한 《실력을 배양》하여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한 반공체제를 정면비방하고 그 류례를 찾아볼수

특히 박정희역도는 《통일을 위해서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고 떠들면서 1972년 10월 17일 《유신》파쇼체제를 수립하고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하지만 자주, 민주,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유신》파쇼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에 파강히 떨쳐나섰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의 10월민주혁명에 의하여 《유신》파쇼독재는 파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남조선에서 자주와 사대, 민주와 파쇼, 통일과 반통일사이의 대결이 절정에 이르고 사회적혼란이 극도에 달하자 미국은 저들의 오래동안 써먹어온 친미주구인 박정희가 더는 쓸모없다고 판단하고 종래를 시켜 역도를 비참하게 사살하였다. 이로써 《유신》독재정권과 합의를사함을 모조리 거부하고 유린하는데로 나갔다. 본사기자 박철남



박정희역도의 《유신》파쇼체제를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청년학생들

# 사랑의 생명수 흘러넘치는 나라

— 세계 물의 날을 맞으며 —

지난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물자원문제가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하여 유엔총회 제47차회의에서는 사람들에게 물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며 물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할 목적으로 매해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하였다.

오늘 지구상에서 인구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의 발전으로 하여 물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하지만 물자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간의 모순으로 하여 심각한 물자원 위기가 조성되고있다.

물자원의 부족은 식량문제, 에너지문제 등 허다한 문제들을 연쇄적으로 산생시키면서 인류의 생존을 심히 위협하고있다.

세계적으로 물부족과 물오염으로 하여 물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거나 깨끗한 물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십억이상에 달하고있으며 물위기가 더욱 첨예화되고있다 못해 나라들사이에 《물분쟁》, 《물전쟁》까지 일어나고있다.

그런데로부터 많은 나라들에서는 물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을 나라와 민족의 장래 운명과 관련된 정치경제발전 위한 전략적과제로 제기하고 그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비물은 물자원으로 리용하거나 바다 물을 공업적방법으로 처리하여 담수로 리용하기 위한 연



항해남도물길



개천-대성호물길



대성산샘물공장

구사업, 오수처리기술을 받아들여 공업과 농업, 도시경영 등에 널리 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물자원을 보호하고 그 관리와 리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들이 활발히 벌어져 성과를 거두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에게 언제나 맑고 깨끗한 물을 보장할수 있도록 수질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그리고 새로운 광천자원들도 개발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해나가고있다.

사회주의문명의 별칭지로 전변된 양덕은천문화휴양지를 통하여 알수 있는것처럼 이른바 온천, 약수들이 있는 곳들을 인민을 위한 문화휴양시설들을 훌륭히 꾸려놓고 인민들이 그 덕을 보도록 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물자원이 풍부한 곳들에 수력발전소들과 개천-대성호물길, 백마-철산물길을 비롯한 자연흐름식 물길들을 건설하여 주변지역을 개선하는것과 함께 전력 생산과 농사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여 귀중한 물자원이 허실되지 않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강하천의 오염

을 막고 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전 국가적, 전 인민적인 사업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인민을 위한 대건설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선취부조건설을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공장과 살림집건설에 앞서 상수도과 오수처리를 위한 지하시설물을 먼저 건설하도록 하고있으며 산업지구의 주민지구의 오수정화능력을 개선현대화하여 오수와 폐수가 강하천과 주변환경을 절대로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고있다.

특히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을 위한 여러 가지 법과 규정들을 채택하



장서약수

여 물자원보호와 관련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해나가고있다.

또한 모든 도, 시, 군들에서 이상기후현상에 대처하여 강하천정리와 제방쌓기, 사방야계공사, 산림조성사업에 비롯한 국토환경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어 물자원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고있다.

이렇듯 공화국에서는 물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물질적기초가 든든히 다져져 나라의 물자원이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들의 물질문화적부진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철

## 락동강수질오염이런 날아가는 원형

남조선잡지 《한겨레21》은 4대강사업으로 락동강일대가 심히 오염되어 사람들의 건강에 커다란 해독적후과를 미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몇해전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의 백천과 락동강이 만나는 합수부에서 길이 2km에 걸쳐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을 당하였다. 락동강의 물고기떼죽음은 해마다 거듭되고있다. 이것은 4대강사업으로 락동강일대에 거대한 콘크리트보가 건설된 후에 벌어진 일이다.

물고기떼죽음의 1차적인원인은 물속산소가 줄어들었기때문이다. 락동강류역에만 8개의 대형보가 건설되었다. 이 보가 물길을 가로막으면서 강은 사실상 호수가 되어 버렸다.

원래 강바닥에 있어야 할 모래가 사라지고 펄이 대부분을 뒤덮었다. 펄은 각종 부유물질이 가라앉아 부패한것이다. 펄의 산소농도는 0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비가 내리면 물의 우아해가 뒤따르는 전도현상이 일어나면서 물고기가 집단폐사하는것이다.

강바닥의 펄을 없애려면 보의

수문을 열어야 한다. 그러나 4대강사업완공뒤 거의 수문을 열지 않고있다. 극심한 폭조현상때문에 어쩔수없이 수문을 열더라도 펄을 개방하는 수준에 그치고있다.

이때문에 강물의 결층에 있는 독소만이 일부 흘러내려갈뿐이고 수중생태계오염의 주범인 펄은 여전히 강바닥에 가득하다. 락동강에서 물고기떼죽음은 하나의 《년례행사》가 되어버렸다.

언제인가 브라질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던 환자들이 죽음으로 몰아넣은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LR가 락동강에 창동강류역에만 8개의 대형보가 건설되었다. 이것은 강물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다.

락동강물을 먹는물로 쓰는 주민수는 1300만명에 달한다. 간암을 일으킬 정도로 치명적인 독소가 녹아든 강물이 먹는물로 리용되고있는셈이다.

정수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물이 수도관을 타고 가정에 우아해가 뒤따르는 전도현상이 일어나면서 물고기가 집단폐사하는것이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심각한 낙동강 녹조, 바로 건너편에 취수장

미군기지 유해물질 낙동강을 위협하다

자라나는 세대들을 어떻게 교육교양하고 준비시키는가에 따라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이 결정된다.

공화국에서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무럭무럭 자라도록 현대적인 교육조건과 환경, 과외생활기지를 원만히 보장해나가고있다.

학생이 불과 2~3명밖에 안되는 심심산골 마을에도, 작은 등대에서도 분교와 교실이 있어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통학열차, 통학배가 다니고있는것이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공화국의 현실이다.

이름난 명승지, 명당자리들마다에 학생소년들을 위한 야영소, 소년궁전을 비롯한 훌륭한 과외교양기지가 일떠서고 그곳에서 학생소년들이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씩씩하게 자라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온 나라의 모든 학생들에게 국가적부담으로 새 교과과 교과서, 학습장, 책가방을 보장해주는것이 변함없는 국책으로 되고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이 쓰고 있는 《소나무》책가방, 《민들레》학습장, 《해바라기》학습용품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귀중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해 공화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질 좋은 교과과 가

것은 결코 나라의 경제형편이 좋아서도 또 여유가 많아서도 아니다.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안아오 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하기에 세계인들은 《조

국에서 국가가 학부형이 되어 후대들을 위하여 천만금도 아끼지 않았고 앞날의 기동감들로 키워가고있을 때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한창 배울 나이의 청소년들이 배움의 권리를 빼앗기고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다.

하늘높은줄 모르고 올라만 가는 학비때문에 청소년들이 절망에 빠져 타락과 범죄의 길로 굴러떨어지고있으며 신성한 교정이 범죄의 온상으

로 되고있다. 오죽하면 지옥이라는 말조차 몰라야 할 청소년들이 《학교가 막 지옥같이 다니기가 싫다.》고 말하고있겠는가.

나라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배움의 꿈과 희망을 활짝 꽃피워가고있는 북반은 이 땅의 청소년들과 반인민적자에게 조선특유의 발전방식이 있으며 미래를 확신하며 도도히 나아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이 있다.》고 하면

이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공화국밖에 없다.

본사기자 전 명진

## 국가가 학부형이 되어

방을 모든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공급하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가 취해진데 이어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국가적부담으로 셋째품을 비롯한 영양 식품을 공급하는것이 정책으로 수립되었다.

나라의 중요정책을 론의하는 회의들에서 어린이들과 관련된 문제가 우선적으로 토의 결정되고있는것을 통해서도 공화국에서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에 얼마나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수백만명이나 되는 온 나라의 아이들에게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은 결코 나라의 경제형편이 좋아서도 또 여유가 많아서도 아니다.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안아오 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하기에 세계인들은 《조

국에서 국가가 학부형이 되어 후대들을 위하여 천만금도 아끼지 않았고 앞날의 기동감들로 키워가고있을 때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한창 배울 나이의 청소년들이 배움의 권리를 빼앗기고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다. 하늘높은줄 모르고 올라만 가는 학비때문에 청소년들이 절망에 빠져 타락과 범죄의 길로 굴러떨어지고있으며 신성한 교정이 범죄의 온상으



##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볼수 있는 애국의 기풍

조국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나는 얼마나 이바지하고 있는가.

오늘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이 물음앞에 자신을 세우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유익한 일을 스스로 할아나고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것이 하나의 사회적기풍으로 되고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일에는 네일내일, 크고작은 일이 따로 없으며 어렵고 힘든 일을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자기의 몫으로 스스로 할아나고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것이 하나의 사회적기풍으로 되고있다.

얼마전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세멘트직장에서 1호와 2호코킹분쇄기를 보수할 때였다. 교대를 마친 로동자들이 그냥 보수작업을 하고있는것을 본 직장장은 어서 들어가 휴식하라며 질책을 높였다.

히나 로동자들은 보수시간을 앞당길것만큼 세멘트생산

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수가 끝난 다음에 밀린 휴식을 봉창하겠다고 웃음지으며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직장장은 모르지 않았다. 그들이라고 해 휴식하고싶은 생각이 없겠는가. 하지만 더 많은 땀을 흘릴수록 세멘트 생산이 늘어난다는 생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여러 번 일감을 출산 떠맡은 그들이었다.

어머니조국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받들 줄 아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면 년로한 나이에도 나라의 쌀독을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애쓰고있는 최창군에서 살고있는 라명란로인. 이제 모습도 떠오른다.

평범한 농사꾼의 딸을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으로 내세워 준 나라의 은덕에 얼마나 감사했는가. 이런 생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건만 스스로 농장직으로 제일 나쁜 땅을 맡아 일곱공산에 이바지할것을 결심한 라명란로인. 이제

는 공로자재우를 받으며 여생을 편히 보내라고 일꾼들이 만류했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자진하여 저수확지를 맡은 그는 직심스레 땅을 가꾸었다. 마을사람들은 그가 언제 밭으로 나가고 언제 집으로 들어오는지 알지 못했다. 온 한해 밭에서 살다 싶이하며 땀을 흘린 결과 보기 드문 수출이 났다.

한생의 시작도 끝도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자신을 세우고 순결한 량심을 바쳐가는 사람들이 어찌 이룰뿐이랴.

온 나라가 삼지연시를 인민의 리상향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섰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수 있겠는가 하면서 자진하여 크지 않은 차수리소의 편제없는 수리공이 되어 생의 자욱을 놓아가고있는 혜산에서 살고있는 최명연, 조국보위초소에서 부상을 당한것으로 하여 국가의 보살핌속에서 한

생을 편안히 살수 있지만 나

라앞에 지닌 본분을 먼저 놓고 스스로 저수확지의 포전을 맡아 알찬 결실을 거두고 있는 배천군의 최은일...

극단한 개인주의에 물렸어 사회와 집단은 안중에도 없이 저 하나만의 안락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오직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인생의 기쁨과 보람을 찾을 줄 아는 공화국인민들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아닐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안고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고있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헌신투하는 참된 애국자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는 공화국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그 미래 또한 휘황찬란하다.

본사기자 홍병식

## 독자문답 제카나라도 우성미선생이 제기한 질문

### 공화국에서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가

공화국에서는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이 태어나면 나라의 경사로 되어 만사람의 축복을 받는다.

그가 누구든 세쌍둥이, 네쌍둥이임부로 확정되면 국가에서는 평양산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해준다. 그리고 평양산원에 입원한 때로부터 그들에게 매일 영양제를 공급해준다.

세쌍둥이, 네쌍둥이를 낳은 산모들은 국가에서 일정한 기간 보약제로 건강을 회복시키며 다음 퇴원시키며 그들의 자식들은 몸무게가 4kg이상 될 때까지 평양산원에서 맡아 키우며 해당 지역의 육아원으로 보낸다.

육아원에는 수년세월을 고정적으로 맡아 세쌍둥이, 네

쌍둥이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는 담당보육원들이 있다.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의 수가 늘어나면 아동병원의 유능한 의료진들이 육아원을 임시로 조성되는데 그들의 건강을 낱과 밤이 따로없이 돌보아준다.

나라는 원아들과 함께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에게 매일 고기와 물고기, 남새, 과일, 당과류 등을 나이에 맞게 정상적으로 공급해준다.

이렇게 만 4살에 이르러 부모들의 곁에 가게 되는데 그때 국가에서는 그들에게 원래 그들이 쓰고있던 집보다 더 크고 좋은 집에 갖가지 가구들과 생활필수품들을 그 흔히 갖추어 배려하여준다. 집에 돌아와서도 세쌍둥

이, 네쌍둥이들의 건강과 보육은 해당 지역 진료소의 담당의사와 탁아소보육원들이 맡아하게 되는것으로 하여 어머니는 불행없이 자식들을 키우게 되는것이다.

공화국에서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을 나라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키우주는 전철 같은 사랑의 력사는 1947년 7월 어느날 해방조선에서 세쌍둥이들의 출생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날 세쌍둥이와 산모에게 의사와 간호원들을 불러 주도록 하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어 세쌍둥이들의 양육에 필요한 영양제와 옷, 포탄까지 배부해주도록 해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앞으로 세쌍둥이가 출생하

면 아이들과 산모를 나라에서 책임지고 특별히 돌봐주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 이후에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세쌍둥이와 네쌍둥이들이 태어나 국가의 혜택을 세상에서 부럼없는 행복을 누리며 나라의 역군으로 자라났으며 오늘날 이들이 대한 국가의 인민적시책은 변함이 없다.

본사기자

# 극악한 동족대결광에 대한 분노의 표출

최근 남조선의 진보운동세력들속에서 동족대결을 고취하고있는 윤석열을 규탄, 저주하는 기운이 날로 고조되고있다고 한다.

얼마전 60여개의 진보운동단체들이 망라된 자주민주평화통일민주주의연맹은 《전쟁반대, 평화수호》라는 주제로 첫 《민족자주화해행동》을 개최하고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중단시키고 평화로 나아가려면 전쟁광, 《검찰왕》인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하면서 반전평화운동을 반윤석열투쟁과 병행하여 벌였다. 한편 《한국진보연대》, 《개혁과 전환을 위한 진보연대》를 비롯한 진보운동단체들도 과거 보수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여 북남관계를 더욱더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윤석열패당에게 맞서 자주, 민주, 통일투쟁에 총력기해나설것을 결의하고 다양한 형식의 투쟁들을 활발히 전개하고있다.

윤석열이 권력의 자리에 앉기도 전부터 남조선 각계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이 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다.

바로 선임자들도 쪼찌먹을 극악한 특동동족대결광이기 때문이다.

그가 《대선》전부터 《살길은 한미동맹강화》,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조선반도진출가능》 등 매국노 리완용도 낮을 불릴 사대매국적인 망발을 일삼고 감히 《북은 주적》, 《북에 대한 선제타격》, 《북의 불법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처》따위를 함부로 뱉어댄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이런자가 《대통령》자리에 앉게 되었으니 북남사이에서 대결과 불신이 더욱 격화되고 조선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불안한 정세가 조성되리라것이 남조선 각계의 평가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집권기간 추악한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미처나타지 못한 박근혜당의 망동으로 북남사이에서 총포탄이 오가는 협박한 사태까지 벌어졌던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윤석열이 노는 꼴을 보면 그 살벌했던 광경이 다시 되풀이될수 있다는것을 남조선

# 《4월위기》, 누가 몰아오는가

남조선에서 그 무슨 《4월위기설》이라는것이 나돌고있다.

내용을 보면 북이 신형대륙간도미사일 발사하여 미국을 더욱 팔치아프게 자극할것이라는것, 4월에 강행하기로 계획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에 북이 강도높은 군사적조치로 대응할것이라는것, 북의 전략무기시험발사에 대비한 미국전략자산의 남조선과 주변에 대한 전개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것이라는것 등이다.

최저는 늑이 제 그림자 보고도 놀란다의 격이 아닐수 없다.

마치도 그 무슨 《위기》라는것이 공화국의 전략무기시험발사와 《군사적조치》때문이라고 떠들고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사태의 진상을 외곡하는 비렬한 허풍소리이다. 조선반도정세가 날로 격화되고있는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호전세력의 망동때문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앞에서는 평화와 협력, 대화에 대해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목표로 하는 전쟁불장난에 광분하고있는것이 바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다. 최근에도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상반기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일정을 기본적으로 확정하고 4월부터 군사연습에 진입하려 하고있으며 한편으로는 미국의 후원밑에 동족을 치기 위한 각종 무기와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족의 자위적인 국방력발전권리까지 문제시하면서 미국을 위시

# 《동일백서》가 아니라 자백서를 내야

최근 남조선당국이 《2022 통일백서》라는것을 발간, 배포하였다고 한다.

당장 자리를 내놓고 물러나야 할 판에 그 무슨 《백서》라는것을 발간한것도 우스운노릇이지 않는가? 《백서》란것이 온통 자화자찬과 책임회피로 일관되어 있어 남조선 각계의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의 현 당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북남합의들을 어느 하나도 리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화》와 《평화》의 막뒤에서 긴장을 격화시키는 등 친미사대굴종과 동족대결광들에 매달려 왔다는것은 세상 이 다 아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가 당국이 미국의 손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남북관계가 친척되지 못하였다, 당국의 대미굴종정책이 문제라고 하면서



현 당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었다.

그런데도 이번 《백서》에 그 무슨 《대화와 협상을 위한 노력》과 《역할》에 대해 쪼아박았다고 하니 그 철회포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 참을수 없는것은 남

# 취임전부터 망조가 든 새 《정부》

거짓과 교활성은 바로와 위선자들의 은신처라는 말이 있다.

《소통》, 《통합》을 줄조리미며 이른바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라는 뽀새를 퍼우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대통령》이라는 난감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소야대》로 될 정치국면에서 《식물대통령》으로 전략될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권보술수에 불과한것이다.

진심과 상반되는 언행을 일삼고있는것이 그것을 잘 해준다.

대다수의 남조선인민들, 특히 여성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강행하겠다고 하는것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으로 나가겠다는 윤석열의 본심을 보여주고있다.

심각한 불평등, 직업불안정, 낮은 출생률, 로인빈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부패정치, 미국과 일본에 남조선의 모든것을 넘겨버리는 사대굴종정치, 바로 이

# 과거의 암흑기가 되살아나고있다

남조선에서 《정권》인수와 새 《정부》의 정책수립을 맡아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업무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주위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는 말도 없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보면 《반쪽짜리 당선인》의 앞으로의 정치가 어떨것인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라는자는 권력야욕실현을 위해 자기를 지지하던 사람들의 기대를 하루아침에 저버려 기회주의자, 배신자로 비난받고있는 자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있는 이른바 《실무형의 전문가》들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전 보수 《정권》에 부부했던 악질대결본

# 민심의 격분을 자아내는 당선자의 이사늘음

남조선에서 윤석열이 《대통령》 사무실을 청와대에서 통산으로 이전하기로 한것은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있다. 《국민과 소통》한다며 광

# 산불피해는 왜 수습되지 못하는가

최근 남조선에서 련이어 발생한 초대형산불피해로 하여 주민들이 불안과 고통을 겪고있다.

지난 3월 4일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만 하여도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3만 490여개의 축구장크기와 맞먹는 2만 1772ha의 산림을 불태워버렸다.

이번에 남조선에서 련속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수백채의 살림집과 공공건물, 시설들이 재더미로 되었으며 수천세대대의 주민들이 한지에 나앉게 되었다.

산불피해가 너무 큰것으로 하여 현지 주민들은 커다란 고통을 겪고있으며 화재현장은 전경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참담하게 변해버렸다고 한다.

남조선당국이 뒤늦게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지만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것이 남조선의 현 실태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산불피해가 발생한지 며칠이 지나도록 산불범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당국이 산불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올해에도 대형산불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당국의 허술한 산림관리와 미흡한 피해복구대책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있다.

초대형산불피해를 저지른 정략적목적에 악용하는 윤석열을 비롯한 《국민의힘》것들의

# 《선제타격》 받은 국방부

윤석열이 통산에 있는 국방부에 사무실을 이전하겠다는 리유의 하나가 《편리성》이다. 국방부청사에는 지하방공

# 통산은 사대매국의 《명당자리》

통산은 대대로 서울속의 남의 땅으로 불리워왔다. 한세기넘어 서울속의 남의 땅, 침략적인 외세의 군화발에 짓밟혀온 수만의 력사가 기록된 땅에 사무실을 두겠다는 윤석열의 속심을 알만 하지 않은가.

미국의 삼살개가 되고 일본과 입맞추자면 뿌리부터 갈아야 한다는, 친미, 친일을 《근본》으로 삼겠다는 흥심이다.

외세에 의해 불행의 력사를 강요당한 통산이 철정한 전쟁대포로써 끌려가던 모 집장소로 리용되어왔다.

해방후 미국이 남조선을



행태는 더욱 민심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민생을 위해 무엇인가 할것처럼 너스레를 떨던 윤석열은 피해지역에 찾아가 《지원》이니 뭐니 하는 달콤한 약속을 하고서는 돌아앉아 친문학적역수의 혈세를 탕진하면서 《대통령》사무실 이전에 몰두하고있다.

예대장 윤석열을 비롯한 보수패당에게는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그들의 고통을 가셔주려는 티끌만한 마음도 없었고 오직 권력욕과 사리사욕에 환장되어있을뿐이다.

《윤석열이 자기 만족을 위해 사무실을 강압이전하여 주민들의 혈세를 날리려는것을 막아달라》, 《사무실 이전에 드는 막대한 비용으로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라》.

남조선민심의 터치는 이 울분의 목소리는 인민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이 저들의 정치적리해관에만 저울질하는 윤석열보수패당에 대한 준렬한 타매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평양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선조들의 애국충정이 깃든 동금강암

평양시교외에 고려시기 세워졌다는 동금강암이 자리잡고 있다. 동금강암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봄계절과 함께 한껏 부풀어올랐다. 주변의 경치에서 눈길을 빼지 못하며 우리는 옛 사찰인 동금강암에 이르렀다.

동행한 림금성 평양시민족유산보존사 실장은 동금강암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하여 들려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주변의 경관이 금강산의 경치에 못지 않다고 하여 동금강암이라고 불리운다는 것이었다.

《동금강암은 고려시기 당화부락(동금강암밑에 있던 부락)에 있던 자비사가 불에 탄 후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밑에 들어앉은 동금강암은 그후 다섯번이나 고쳐지었는데 본채와 칠성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익공식합각 집으로 된 동금강암본전에 대하여 설명을 이어갔다.

《동금강암의 본전은 높이는 바위를 뒤에 두고 앞으로는 경사진 자연지세를 리용하여 터를 잡았습니다. 앞면에는 2단으로 기단을 높직하게 쌓고 좌우측면과 뒤면에는 조금 낮게 1단으로 조성한 다음 그우에 건물을 앉혔습니다.》

그의 해설을 들으며 본전을 돌아보느라니 건물의 앞면 4칸 중에서 오른쪽 끝은 부엌으로 되어있고 왼쪽3칸은 퇴마루가 있는 온돌방으로 되어있었다.

본전의 가운데칸 불단안에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있었다. 아미타여래의 좌우에 동으로 만든 초대 2개가

있었고 《평양부 염전리》라는 글이 새겨진 세발향로가 놓여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원래 불단우에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있었는데 묘향산 보현사에 옮겨가고 그대신 아미타여래좌상이 들어앉았다고 한다. 불상뒤에는 관음보살후불탱화가 걸려있었다.

일행은 퇴마루가 달린 합각집모양의 칠성각도 돌아보았다.

《이 건물을 칠성각이라고 불렀지만 원래는 매 경간마다 간막이를 하고 칠성각, 독성각, 산신각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니다.》

림금성실장이 하는 말이였다.

칠성각의 뒤쪽으로는 가파로운 절벽이 솟아있었다. 아찔한 벼랑이 칠성각의 뒤쪽에 병풍처럼 둘러서있는 모습은 볼수록 장관이었다.

이곳에서 인진조국전쟁시기 서산대사와 사명당이 왜적을 쳐물리치기 위한 묘한 계책을 세우고 원수놈들을 죽이는데 필요한 활촉들을 만들어냈다 는 일화가 전해지고있다. 비록 요란한 건물은 아니였어도 동금강암은 나라를 지키려는 승병장들과 우리 선조들의 애국충정이 깃들어있는 곳이었다.

장속영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들

4.25 체육단 축구선수 김명순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된 4.25체육단 축구선수 김명순은 로련한 문지기로서 지난해에 진행된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여자 1부류 축구경기와 2020년-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자 1부류 축구경전에서 4.25팀이 각각 1위를 쟁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천성적으로 머리가 좋고 육체적조건이 뛰어난 그녀는 유년성훈련과 조약훈련, 반응속도를 높이는데 많은 힘을

넣었다. 피라게 노력한 보람이 있어 그는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높은 실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2016년 국제축구연맹 20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와 2017년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축구선수권대회, 제30차 여름월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 여자축구경기 등에서 정확한 판단과 빠른 결실책, 날렵하고 민첩한 동작으로 실적으로 이어질수 있는 공들을 책임적으로 막아내어 팀의 우승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2017년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축구선수권대회에서 한골도 허용하지 않은 문지기로서 대회최우수문지기상을 수여받았다.

지난해에 진행된 국내경기들에서 4.25팀은 실적이 제일 적은 팀으로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그것은 김명순이 팀의 골문을 믿음직하게 지켜냈기 때문이다. 그는 2020년-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자 1부류축구연맹전에서 최우수문지기상을 받았다.

본사기자

농업발전을 추동하는 과학기술성과들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식물유전자공학연구소에서 농업생산이 자연기후조건이 아니라 농업과학기술에 의하여 담보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곳 연구소에서는 논벼의 전생육기간을 지난 시기에 비해 훨씬 앞당길수 있는 논벼수경제배장치를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여 염기전달성, 추위견딜성증가들을 육성하였다.

이들의 연구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재해성이상기후견딜성 벼종자들을 극한조건에 견디면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하고있는 것이다. 또한 추위견딜성증가자를 도입하여 농촌에서 긴장한 비닐박막을 쓰지 않으면서도 적기에 모내기를 진행할수 있게 하고있다.

연구사들의 말에 의하면 새 품종의 종자를 도입함으로써 재배품종 파종때보다 불리한

일기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안전한 소출을 벌수 있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논벼의 생육기일을 앞당기고 알곡사이 결합시일문제를 해결하여 알곡 대 알곡 2모작재배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새로운 품종의 벼종자들은 간석지와 바다를 끼고있는 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들에 도입되어 호평을 받고있다.

이곳 연구사들은 도입된 종자들에 대한 품종비교시험도 진행하면서 선발된 종자를 과학기술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고있다.

거둔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이곳 연구사들은 가물견딜성종자, 침수견딜성종자, 계분관개기술에 의한 다수확논벼에 대한 연구사업도 동시에 내밀고있다.

이들의 연구성과는 불리한 재해성이상기후를 이겨내고 알곡생산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림광훈



인종로리 김구이

김구이는 김우에 소를 넣고 그우에 다른 김을 덮은 다음 구워 만든 요리이다. 김에는 여러가지 미량원소와 비타민류가 많이 들어있어 건강에 리롭다.

또한 향기롭고 맛이 독특하여 김밥, 김종죽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식료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

김구이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김 6장일 때 소고기 100g, 목두나물 50g, 깨소금 1g, 간장 5g, 참기름 30g, 파 15g, 밀가루 20g, 후추가루 0.5g을 준비한다.

소고기는 보드랍게 다져 파, 간장, 후추가루로 양념하여 볶아놓는다.

목두나물은 데쳐 잘게 썬 다음 볶은 소고기, 다진 파, 간장, 깨소금, 후추가루, 참기름, 밀가루와 같이 반죽한다.

김을 펴고 그우에 소를 놓은 다음 다른 김을 덮고 참기름을 두른 구이판에서 구워낸다.

이렇게 하면 맛있는 김구이가 완성된다.

본사기자



숙량과 유래

고려시기 송도(오늘의 개성)에 한 외(참외)장사가 있었다.

그는 서울에서 외값이 올랐다는 말을 듣고 외를 한바리 가득 싣고 서울로 갔으나 그사이 거기서도 외값이 폭떨어졌다.

이걸 어찌하나 걱정하는 데 이번에는 의주에서 외값이 엄청나게 높다는 말을 들었다. 그대 외장사는 부랴부랴 의주에 갔으나 여기서 역시 그사이 외값이 폭떨어졌다.

본사기자

송도 외장사

《가루팔러 간 날 망할 놈의 바람질이라더니 가는 곳마다 이 꼴이냐!》

맥이 타 풀러 송도로 돌아와 외를 헤쳐보니 글썽 서울로, 의주로 다니는 사이 외는 몽땅 썩어문드러져 냄새가 코를 찌렀다.

이 일을 계기로 《송도 외장사》라는 속담이 생겨났는데 여기에는 조금이라도 더 리를 보려고 하다가는 랑패를 보게 된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본사기자

사화

올바른 효도 (1) 글 엄창도, 그림 채대성

고려 명종왕시기 나라의 도읍인 개경에서 있는 일이다. 어느해 봄날 해가 서쪽으로 서서히 기울고있는데 후리후리한 키에 역세게 생긴 군졸이 긴 창을 손에 들고 개경성의 동대문을 나서고있었다. 김의원이라고 하는 총각 군졸이었다.

개경에서 동북으로 20여리 떨어진 험한 화장산을 향해가는 그는 기쁨에 넘쳐있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화장산에는 곰이 살고있었다. 지금의 내가의 벼들 개지가 한창 피어나는 이른 봄철이어서 겨우내 구세먹은 나무속에 들어가 겨울잠을 잔 곰이란 놈이 밖으로 기어나올 때인지라 손에 익은 창으로 곰을 쫓아내면 곰열을 쉽게 얻을수 있을것이다.

그 곰열로 십년나마 고생하는 어머니의 허리병을 쫓아내듯 이 고쳐드릴수 있을것인줄 어머니가 참기 어려운 허리병을 털어버린다면 다 소나마 자식된 효도를 다

하는것으로 될것이 아니겠는가.

긴 창을 들어쥐고 씩씩씩 씩을 옮기는 김의원의 눈앞에는 자기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던 어머니의 지난날이 선히 떠올랐다.

아마도 자기처럼 어머니에게 속거나 태운 자식도 쉽지 않을것이었다. 그가 강보에 싸여있을적에 변방에 기여든 오랑개군과의 싸움에서 아버지가 잘못되자 그는 홀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랐다.

남달리 벌찬 그는 어려서부터 어찌나 장난이 세찬지 다른 아이들보다 몇곱절이나 질신과 옷을 헤뜨렸다.

날마다 동네아이들을 휘둥하여 무사놀이를 한다며 하루에도 몇번씩 마을뒤의 룡수산을 오르내렸고 쯤하면 가난한 집 아이들을 꺾고는 부자집자식들과 코피가 터지게 싸우곤 하였다.

부자집녀들은 자기네 자식들과 돌아가며 싸우는 어린 김의원을 가리켜 라고난 불쌍놈이니 싸움질밖에 모른다고 저러다 못매맞아 죽게

된다느니, 예비없는 후례자식 망종되어 집안을 망하게 할거라느니 하고 쌍욕을 퍼부어왔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김의원의 어머니는 너무도 가슴이 아파 무사놀이고 싸움질이고 그만두지 못하겠느냐며 도리어 어린 자식에게 매를 들곤 하였다.

어린 김의원은 매를 드는 어머니에게 무사놀이를 하는것은 나라를 지키는 싸움에서 목숨을 바친 아버지의 원수값을 힘을 키우는 것이고 부자집자식들과 지지 않고 주먹질을 하는것은 덜어놓고 가난한 집 아이들을 꺾고고 멸시하는 그릇된 버릇을 배우자는것이라고 대답했다.

어머니가 아무리 말려도 어린 김의원의 성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생각다 못해 어머니는 아들들 이웃마을의 글방선생에게 맡기었다.

한생을 글방에서 늙은 선생은 사나운 말에는 특별히 한마디를 지운다면서 불의

한걸 보면 참지 못하고 싸우려드는 김의원의 좋은 장점을 헤아려 그에게 글공부와 함께 무술도 배워주었다.

엄격한 글방선생의 슬하에서 글도 배우고 활쏘기며 창세기, 수박회와 같은 무술도 담은 김의원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군사가 될 꿈을 품게 되었다.

하여 김의원은 17살 나던

올정초에는 아버지가 있던 변방의 군진으로 자진해가려 했는데 어머니의 허리병이 더 심해져서 운신할수 없게까지 되었던것이다.

그동안 김의원이 허리병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때문에 마음을 쓰지 않은것은 아니었다. 허나 어머니의 허리병은 어찌나 고질인지 그가 지어다 준 여러가지 초약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다면서 귀맛도는 비결을 알려주었다.

어머니의 허리병을 제격 고쳐드릴 비결을 안 김의원은 사기가 나서 고향마을로 찾아갔다.

외할아버지의 묘를 파서 산수 좋은 명당자리로 떠옮기면 허리병도 뺄수 있고 온 집안에 복도 든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는 기뻐할 대신 도리머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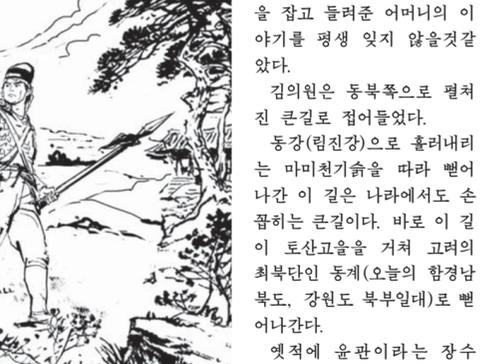
김의원은 그날 자기의 손을 잡고 들려준 어머니의 이야기를 평생 잊지 않을것같았다.

김의원은 동북쪽으로 펼쳐진 큰길로 접어들었다.

동강(림진강)으로 흘러내리는 마미천기슭을 따라 뻗어간 이 길은 나라에서도 손꼽히는 큰길이다. 바로 이 길 이 토산고을을 거쳐 고려의 최북단인 동계(오늘의 함경남북도, 강원도 북부일대)로 뻗어나간다.

옛적에 윤관이라는 장수가 거느린 20만대군이 바로 이 길로 해서 동계에 출진하여 변방을 소란케 하던 외적을 몰살시키고 두만강 건너의 선춘령에다 국경보루를 일떠세웠다.

옛 군사들의 자취가 어렸는 큰길을 따라 걸음을 재우치며 김의원은 담담한 목소리로 들려주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려보았다.



해에 경군(중양군)의 군사로 될수 있었다. 군사가 된 김의원은 보다 더 뛰어난 무술을 연마하려 맘을 많이 흘렸다.

무슨 재주든 마음먹고 달려볼 때 배워뉘 될수 있음을 확신한 그것기에 인차 무술합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수 있었다.